



제 2 회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개회사
OPENING ADDRESS



제 2 회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2013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국제워크숍 “농사, 도시를 치유한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란 시골에서 농부들이 생산을 목적으로 짓는 일이라 생각하였지만, 요즘 도시는 가정에서, 동네텃밭에서, 옥상에서, 심지어 공원에서도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사짓기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처럼 도시농업의 열풍이 부는 것은 무엇 연유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문명, 첨단과학 말고도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농사는 각박한 도시민의 삶에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고, 흙을 만지는 건강한 노동을 통해 정신과 몸을 맑게 해줍니다. 나아가 도시의 대안적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게 해줍니다.

2013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일본과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서울이 만들고 있는 도시농업의 현재를 발견하고, 3개국의 도시농업 전문가의 고민과 열정을 듣고자 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평화와 소통,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만나보십시오.

서울특별시, 경향신문사,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제 2 회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제2회 서울시농업박람회 도시농업 심포지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도시농업 심포지엄을 찾아주신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도시농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와 함께 서울을 녹색 생명의 도시로 되살리고 도시인의 삶을 변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이 농장에서, 옥상에서, 집안 베란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들은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과 도시농업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하나 둘씩 싹트고 삭막한 도시에 숨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농업박람회는 “천만의 도시농부가 만드는 천개의 도시텃밭 축제”라는 주제로 시민이 기획하고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도시농업전문가들로 도시농업박람회 자문단을 구성하고 여러 도시농업단체가 연합한 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의와 시민 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전역의 주요 텃밭에서 동시에 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텃밭을 체험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등 15개 주요 도시농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순환과 재생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미고 작년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텃밭들을 몸소 체험하고 도시농업 참여 의지를 갖게 할 도시농업투어도 박람회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오늘 도시농업 심포지엄은 시민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하여 서울과 일본, 대만의 도시농업의 오늘을 살펴보고 각국의 도시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계 도시농부가 서로 네트워킹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천만의 도시농부가 만드는 천개의 도시텃밭 축제에 오신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체험하면서 도시농업을 생활화하고 삶과 산업으로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계기를 생각해 보는 심포지엄이 되길 바랍니다.

박람회 전 과정을 기획, 구성, 운영하느라 고생한 서울시의 모든 도시농업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만 도시농부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행복을 키우는 생명의 땅, 공동체 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31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3 제 2 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2013년 5월 30일 부터 6월 2일 까지, 오후 2시 ~ 4시

주요프로그램

5월 30일	워크숍1.	도시농업과 적정기술	후지무라 야스유키 / 히옥스, 강내영
5월 31일	심포지엄	농사, 도시를 치유한다	도시농업시민협의회
6월 1일	워크숍2.	텃밭에서 마켓까지 : 생태적 삶을 위한 도시기획	토미야마 히로시 / 이보은, 김수향
6월 2일	워크숍3.	서울광장의 발칙한 상상, Grow Food, Not Lawn	셴린 창 / 이강오, 신근혜

첫째날 워크숍1 - 도시농업과 적정기술	· 일시	2013. 05. 30. 14:00 ~ 16:00		
	· 장소	시청광장 도시농업박람회장 국제관 (우천시 시민청 동그라미방)		
	· 진행	히옥스, 강내영		
	· 강사	후지무라 야스유키		
	· 내용	페트병으로 데우는 그린하우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패시브 닭장, 태양열을 이용한 식품 건조기와 빗물저장고... 로우테크의 적정기술과 농사의 즐거운 만남 자립과 순환의 생태적 삶을 위한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말한다.		
	· 작업	참여자와 함께 태양광 푸드드라이어기 제작		
	· 키워드	비전화적정기술, 도시농업, 반농반X, 3만엔비즈니스		

둘째날 국제심포지엄 - 농사, 도시를 치유한다 1/2	· 일시	2013. 05. 31		
	· 장소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프로그램	14:00~14:15	개회식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
		14:15~16:00	제 1 부	일본, 대만, 그리고 서울의 도시농업
			주제발표1.	서울의 도시농업 - 이창우 서울연구원 기후변화센터장
			주제발표2.	생명의 재구축, 도시에 씨앗을 뿌리다 - 토미야마 히로시 도쿄아사히치 어스테이마켓 사무국장
			주제발표3.	채소의 성장, 도시의 성장 : 메트로폴리탄 타이페이의 도시농업 - 셴린 창 국립대만대학 건축과 도시계획 대학원 조교수
	질의응답		진행	김흥철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분과위원장
			※ 주제발표 각 30분 (순차통역 포함)	
		16:00~16:15	휴식	





둘째날
국제심포지엄

· 프로그램	16:15~18:00	제 2 부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는 사람들
			TED1. 마을텃밭 김선정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TED2. 학교텃밭 장진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
			TED3. 청년텃밭 나혜란 파릇한젊은이 대표
			TED4. 힐링텃밭 이미애 여성환경연대
			TED5. 텃밭공원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 농사, 도시를
치유한다

2/2

토크쇼	진행	이강오
	출연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천호균 씨지농부 대표
		안철환 텃밭보급소 소장

18:00~19:00	리셉션	
19:00~20:00	제 3 부	특강 적게 쓰고, 행복하게 살기
	강사	후지무라 야스유키
	장소	시민청 동그라미방

셋째날
워크숍2

- 텃밭에서
마켓까지
: 생태적 삶을
위한 도시 기획

· 일시	2013. 06. 01. 14:00 ~ 16:00
· 장소	시청광장 도시농업박람회장 국제관 (우천시 시민청 동그라미방)
· 진행	이보은, 김수향
· 강사	토미야마 히로시 도쿄아사이치 어스데이마켓 사무국장
· 내용	빈 땅 곳곳에 토종 공농사를 짓는 공혁명프로젝트. 그렇게 생산된 콩은 동네 커뮤니티카페의 점심메뉴가 된다. 농사짓는 삶과 도시를 연결하는 젊은이들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요요기 공원 커뮤니티농부시장 "어스데이마켓". 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도시농업의 내일을 말한다.
· 체험 프로그램	텃밭아채 병조림 만들기 (5월30일, 31일)
· 키워드	토종종자, 농부시장, 어스데이마켓, 공혁명프로젝트, 커뮤니티카페

마지막날
워크숍3

- 서울 광장의
발칙한 상상
Grow Food,
Not Lawn

· 일시	2013. 06. 02. 14:00 ~ 16:00
· 장소	시청광장 도시농업박람회장 국제관 (우천시 시민청 동그라미방)
· 진행	이강오, 신근혜
· 강사	헝린 창 대만 국립대 원예학과 교수
· 내용	만약 서울광장의 잔디밭을 걷고, 텃밭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디자인 방법을 통해, 박람회 참가자 누구나가 함께 서울광장 공동체텃밭community garden의 디자이너가 되어본다
· 전시	관련사진 및 판넬, 동영상, 커뮤니티가든 도면과 모델
· 키워드	서울광장, 커뮤니티디자인, 커뮤니티가든, 도시농업, 그로우 푸드, 게릴라가드닝





2013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국제 심포지엄 기조 발제

1. 이창우
2. 토미야마 히로시
3. 쉐린 창

특강 후지무라 야스유키



이창우
Chang-Woo Lee

서울 도시농업의 오늘과 내일



이창우
Chang-Woo Lee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교육학과에서 농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다.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기후에너지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서울시 도시농업 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정책학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창우,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2012.

서울이 농촌화되고 있다

우라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이 농촌으로 변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자료를 가지고 도면작업을 하다가 문득 '서울이 이제 농촌화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텃밭 면적을 다 합쳐보아도 100ha가 채 되지 않지만 크고 작은 텃밭이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다. 마을공동체 텃밭, 자투리 텃밭, 학교텃밭이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고 민간 텃밭 55개소는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서울의 농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가 2012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1/3이 어떤 형태로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란다 텃밭, 옥상 텃밭까지 포함해 도시농업을 넓게 해석하긴 했지만 현실과 그리 어긋나지 않는 조사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사실 지난 50년 동안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 시민의 삶도, 경제도 점점 흠에서 멀어져 왔다.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이 서울 경제를 주도하는 현시점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의 의미를 도시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 모두가 농사짓는 시대가 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이 서울의 주요한 성장산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제 2 회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서울시 도시농업, 이제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한다

서울시 도시농업은 지난 2여 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 도시농업을 질적인 측면에서 따져 보아야 할 시점이다. 텃밭의 수나 면적을 계산하기보다는 관련 프로그램, 형태의 다양성, 접근도, 법제도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도시농업 형태가 현재로서는 임대 텃밭과 상자 텃밭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벽돌형 상자 텃밭, 자루 텃밭, 트럭 텃밭, 수경 재배, 양봉, 양계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 텃밭과 상자 텃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주도의 획일화된 도시농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으로서의 도시농업에 대한 차분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서울 시내 텃밭 대부분이 임시 텃밭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 당국으로서는 영구적인 텃밭 조성이 중요한 과제다.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을 허용해 도시농업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겠다.


도시농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난 수년간 도시농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추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간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도시농업을 꿈꾼다

도시농업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공동체 형성, 기후 보호,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여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도 그 기능이 많다. 그러나 도시농업의 한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도시농업은 만병

통치약이 아니다. 한편 도시농업은 자연에 순응하는 농경문화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도시농업도 크게 보면 도시문화의 일부다.

이제 도시농업에 미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도시농업을 꿈꾼다. 자연미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농업을 꿈꾸면 다양한 과제가 떠오른다. 향기관광과 도시농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다. 힐링 프로그램과 결합한 도시농업은 정신의 아름다움을 고양할 수 있다. 멋있게 디자인된 판매대가 있는, 상설 농민시장이 곳곳에 들어 서길 바란다. 깔끔하게 주말농장의 울타리도 꾸미고, 텃밭 자체도 디자인해야 한다. 일부러 큰돈을 들여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태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면서 도시농업을 미학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이다. 주위 경관과 조화되면서 도시 경관에 살리는 도시농업이 되어야 한다. 이 땅의 생태적 역사를 되살리는 도시농업을 꿈꾼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보는 사람의 꿈속에 있다. 





토미야마 히로시
 富山 普 とみやま ひろし
 Hiroshi Tomiyama

생명의 재구축



토미야마 히로시
 富山 普 とみやま ひろし
 Hiroshi Tomiyama

차바현 아비코시 출신.
 도쿄 미타카시 거주, 두 아이의 아버지

환경공생형의 소규모 농가와 도시소비자가 서로 배우는 농가시장 '도쿄아시아치 어스데이마켓 (東京朝市 アースデイマーケット)' 사무국장을 2009년부터 맡고 있다.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관계가 낯선 문제나 구축할 수 있는 관계성을 테마로 마켓을 허브로 한 음식, 환경, 사회문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의 고민은 후수(늦지 않는 것)가 되지 않는 시민활동 만들기, TPP, 시민의 손에 자신감을 야기하는 일.

필자는 2006년 부터 <도쿄 아시아치(동경의 아침시장) Earth Day Market>라는 이름으로, 도쿄 도립 요요기공원에서 소규모 유기농가 농가시장의 책임자를 하고 있다. 이 활동의 경험에 기초해서 '생명의 재구축과, 도시에 씨앗을 뿌리다'라는 테마로 도시농업의 조금 독특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음식은 생명을 형성한다. 수렵채집이라는 연기만 하는 행위를 넘어 생명 그 자체를 키워 먹는 것이 농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차산업이 가장 축소된 것이 현재의 도시라 한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오늘날의 사회문제와 도시의 산업구조가 무관하다고만 할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 農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도시농업이다.



제2의 고향도 만들 수 있는 “도시농업”

무엇이든 쉽게 구할 수 있는 편리한 도시 속에서 물질을 떠나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고 살았다면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흙을 만질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이 발상을 처음 현실로 옮긴 ‘주식회사 아스라보’는 아스(일어로 내일의 뜻) + Laboratory (실험실)의 합성어로 내일을 실험하는 회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7가구가 사는 유기농원이 달린 셰어하우스 ‘모토아자부 농원’은 주인이 다 함께 야채를 키우면서 휴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매 달 유기농가에서 재배를 지도 하기 위해 찾아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농가와 함께 하는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반적인 교류를 넘어 자연환경이 풍부한 시골에 고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주민들 에게 농가와와의 접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2의 고향 만들기로 이어지고 있다.

씨앗을 지키는 도시농업

요즈음 일본에서 조용한 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씨앗”이다. 얼마 전 도쿄의 오가닉카페의 원조 ‘cafe slow’에서 열린 ‘씨앗과 음식의 맛나는 축제’에는 100여 명 남짓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카페 시작 이래로 가장 성대한 이벤트였다고 한다. 유전자조작이나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F1종 씨앗에 대해 잠재적인 불안감을 갖고 씨앗을 채취하는 생산자나 활동가, 소비자가 모여, 재래종, 고령종, 씨앗 채취를 테마로 교류하였다. 또한 지금 도쿄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키치조우지라는 지역에서는, “씨앗 시장”이라고 하는 씨앗을 얻을 수 있는 야채만을 취급하는 시장과, 이를 키우는 농가, 음식점, 요리연구가들이 이벤트를 열어, 이를 사이에 1,500명이 참가하였다. 이들 이벤트에서는 재래종 야채 뿐만 아니라 씨앗이 매우 많이 팔렸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생명을 이어가는 주체가 도시에서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꿀벌을 지키는 도시농업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의 대량 실종에 대해 다양한 계몽활동이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농약 반대”와 같은 네가티브 캠페인이 많은 와중에, 꿀벌의 입장에 서서 도시농업을 함으로써, 꿀벌을 지키자는 “BEE OUR GUEST!!” 라는 캠페인이 있다. BEE OUR GUEST에서는 “캠페인 키트”를 사용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키트에는 BEE OUR GUEST 스티커와 그림책, 꿀을 얻을 수 있는 식물들의 씨앗이 동봉되어 있다. 아주 단순한 구성으로 된 이 그림책에는 식물과 꿀벌,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과의 관계를 알고, 씨앗을 뿌리며, 실제로 재배와 관찰을 계속함으로써 “벌꿀에게 좋은 동네 만들기”, “사람들을 위한 것 만이 농업이 아니다” 라는 등의 계몽 활동을 하고 있다.





셴린 창
Shenglin Elijah Chang

채소의 성장, 도시의 성장 : 타이완 수도 타이페이의 도시농업

Capital Growth, Cabbage Growth: Urban Agriculture in the Metropolitan Taipei, Taiwan



셴린 창
Shenglin Elijah Chang, Ph.D.

셴린 창은 2000년 버클리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립대만대학 건축과 도시계획 대학원의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셴린 창은 시민예술, 커뮤니티디자인, 사회정치활동 등을 통해 환경이슈에 대중의 참여를 혁신하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주요저서로는 The Global Silicon Valley Home: Lives and Landscapes within Taiwanese American Trans-Pacific Culture (2006) 이 있다. 그녀는 최근 신지역활성화 연구 개발센터New Ruralism Reserch and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농촌지역의 재생을 위해 사회문화적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농촌지역을 재생하는데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

21세기 초에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에 가졌던 도시경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주류 인간의 서식처가 역사상 처음으로 농토와 산림, 강과 동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우리 인간은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나무와 꽃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식량 생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08년 세계 식량위기가 오면서,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식탁에 매일매일 오르는 식료품과 기초적인 농업 생산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식량위기가 아랍혁명으로부터 촉발된 석유가격의 상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 혼란은 이집트, 아이티,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이 국가들에서 일어난 경제적, 정치적 부패 외에도 도시빈곤층에게 식량안전의 문제가 위기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세계적인 대도시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는 이미 탄력성의 관점에서 작성한 도시 청사진계획에 식량체계계획(food system planning)을 포함하여 왔고, 이런 현상이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런던시의 2012수도성장캠페인에 2012년까지 2,012 개의 새로운 도시농업 공간을 개발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파리, 도쿄, 뉴욕 등 많은 도시들이 커뮤니티가든, 옥상텃밭, 양봉, 푸드뱅크 등과 같은 농업활동을 도시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약 100년에 걸친 도시화의 과정에서 전쟁과 석유위기,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도시농업은 지역 활성화와 안전한 식량공급을 위해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에게 물리적·사회·정신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그러나 타이완의 경우 도시에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가축을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런던시가 2,012개의 새로운 도시농업 공간을 만들겠다는 2012년 수도성장 캠페인과는 전혀 다르게, 타이완에서 도시농업활동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공원이나 공공 공간에 유실수와 채소를 심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린공원에 배추를 심는 것은 범죄행위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도둑이나 절도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법체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한 사례로, 가오지양씨를 포함해 8명의 퇴직한 노인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빈땅에 텃밭을 가꾸어왔다. 2011년 8월에 그들은 지방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정부의 재산인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토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이들은 “우리는 빈땅을 가꾸어왔을 뿐인데…, 잡초를 제거하고 마약과 범죄로부터 이 땅을 보호해왔는데, 우리가 왜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라고 그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이웃들도 이 상황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이웃은 “왜 노는 땅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텃밭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라고 반문하였다.



타이완 법률과 공무원들은 그들의 자급자족적인 농업활동을 달가워 하지 않는다. 8명의 타이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많은 도시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도시 주거지에서 농업적 삶의 방식을 추구해왔다. 어떻게 이들이 일상의 도시경관에서 도시 농업을 실천해왔을까? 타이완의 수도에서 도시민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도시농업을 시작하고 참여해왔을까?



나의 발표에서는 첫 번째,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다양한 도시농업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타이페이의 도시 농업은 커뮤니티 가든, 옥상 텃밭, 캠퍼스 가든, 자투리 텃밭, 케릴라 가든, 그린 오피스, 학교 유휴부지 녹화프로그램이 있다. 두 번째는 대안시장으로서 농부시장, 공동체지원농업CSA, 그리고 핑린Pinglin 공동체의 차농사teagriculture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타이페이의 도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리닝스팟greening spot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농업이란 생산 이상의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삶의 방식lifestyle이다.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을 통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태양아래 농사 짓고, 어둠이 오면 쉰다.(日出而作, 日末而息)” 이 말은 20세기 급속한 산업화와 과도한 도시화 이전에, 중국인들의 농업적 삶의 패러다임을 표현해주는 중국의 농업문화유산이다. 지금 처럼 자신의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않는 경제활동 방식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 50년에 지나지 않는다. 심각한 기후변화위기를 맞이하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삶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는 개인이나 가족의 자급자족을 위한 경작활동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시민 대부분이 이행하고 있지는 않은, 시민의 권리라고 믿는다. 🌱



후지무라 야스유키
 藤村 靖之 ふじむら やすゆき
 Yasuyuki Fujimura

적게 사용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후지무라 야스유키
 藤村 靖之 ふじむら やすゆき
 Yasuyuki Fujimura

오사카 대학에서 기초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니혼대학 교수를 지낸 후지무라 박사는 30여 년 간 1,000여 개의 제품을 발명하여 과학기술청 장관상과 발명 공로상을 받은 일본 최고의 발명가이다. 천식을 앓는 아들을 위해 공기정장기를 발명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에 좋은 것'을 만드는 발명가로 거듭난 그는, 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2000년 봄, 전기 사용은 줄이고 행복지수는 높이는 '비전력공방'을 설립하여 제품 개발 및 제작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06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비전력화 프로젝트'의 철학과 성과를 집대성한 「블로그를 읽으면 지구가 아름답다」를 출간하여 한국과 일본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으며, 대한민국과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이 되었다.

비전력 공방 홈페이지 :
<http://www.hideka.net>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마인드셋에 사로 잡혀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빈곤국의 사람들조차 같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에너지와 돈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약 30%의 사람이 강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어차피 대단한 인생은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이 3분의 2를 넘고 있다. 어린이의 54%는 알레르기로, 20%는 화학 물질 과민증으로, 16%는 전자파 과민증이다. 약 1%의 성인이 우울증으로 통원하고 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섰다.



2000년경부터, 나의 발명의 주요 테마는 “비전화”다. 전기란, 에너지와 돈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행복도는 오히려 상승한다”라는 대안을 제안하고 싶어졌다.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국 사람들에게의 제안이다. 일본이나 한국에도 제안하고 있다.

농업에 관한 제안도 많이 포함되어있다. 예를 들어, “비전화 도정기” 일본에서는 쌀을 수확한 직후, 도정하여 현미 상태로 보존한다. 현미는 벌레가 먹기 쉽고 부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15℃ 이하의 저온에 저장된다. 이를 위해 연간 소비되는 전력은 대형 원전 1기 분에 해당한다. 전기 밥솥 등도 포함하면 쌀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소비되는 전력 소비는 대형 원전 47기분에 달한다. 그래서 쌀을 벼 상태로 저장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도정한다. 이를 위한 작은 기계가 비전화 도정기이다. 4년전에 만들어 제안하면서 일본에서는 유행하였다. 한국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비전화 야채 저장고>가 있다. 야채 저장은 일반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비전화 야채 저장고에서 방사 냉각 원리를 사용하면, 전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 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설치 비용은 일반적인 야채 저장고보다 싸다. 당연히 전기세는 제로다.

다음으로, <비전화 그린하우스>의 사례이다. 그린하우스는 도시에 서 농업을 이미지 하여 멋진 디자인에 주력한 주택이다. 일반적인 그린 하우스가 동절기에 전기나 석유를 대량으로 사용한다. 반면 비전화 그린 하우스는 태양 에너지를 축적하여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기와 석유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인이 직접 건설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계되어있다. 나의 평범한 형제들 3명이 3주간에 걸쳐 만든 비전화 그린하우스의 건설비는 15만엔이었다.

그 외에도, 태양광 식품, 드라이어, 자연형 태양열 닭장등, 농업과 관련하여 "적게 사용하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





2013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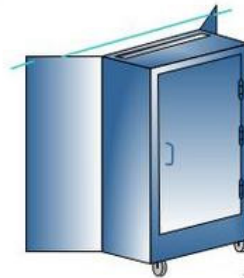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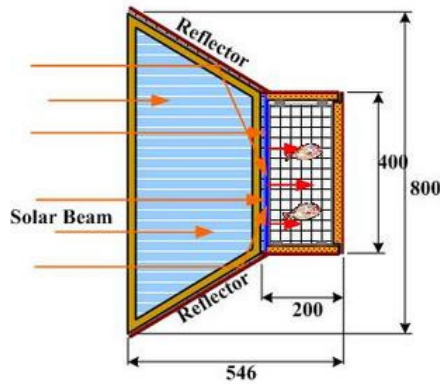
1. 후지무라 야스유키
2. 토미야마 히로시
3. 쉐린 창

후지무라 야스유키
 藤村 靖之 ふじむら やすゆき
 Yasuyuki Fujim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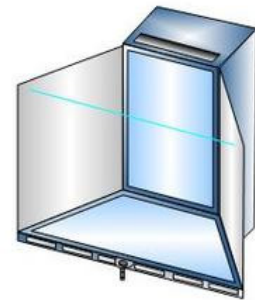
Solar Food Dryer

Invented and Designed
 by Dr.Fujimura

Cross Sectional View
 (Horizontal)



Rear Sid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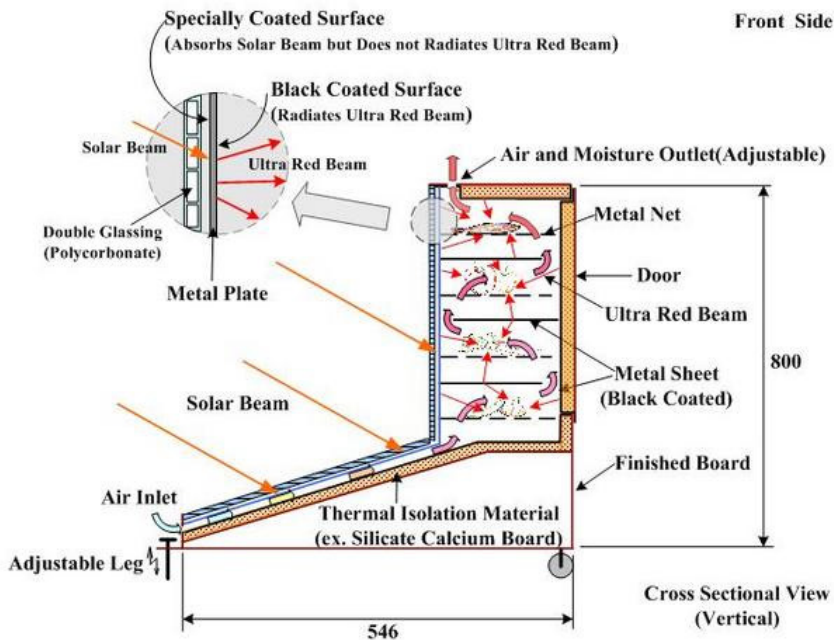
Front Sid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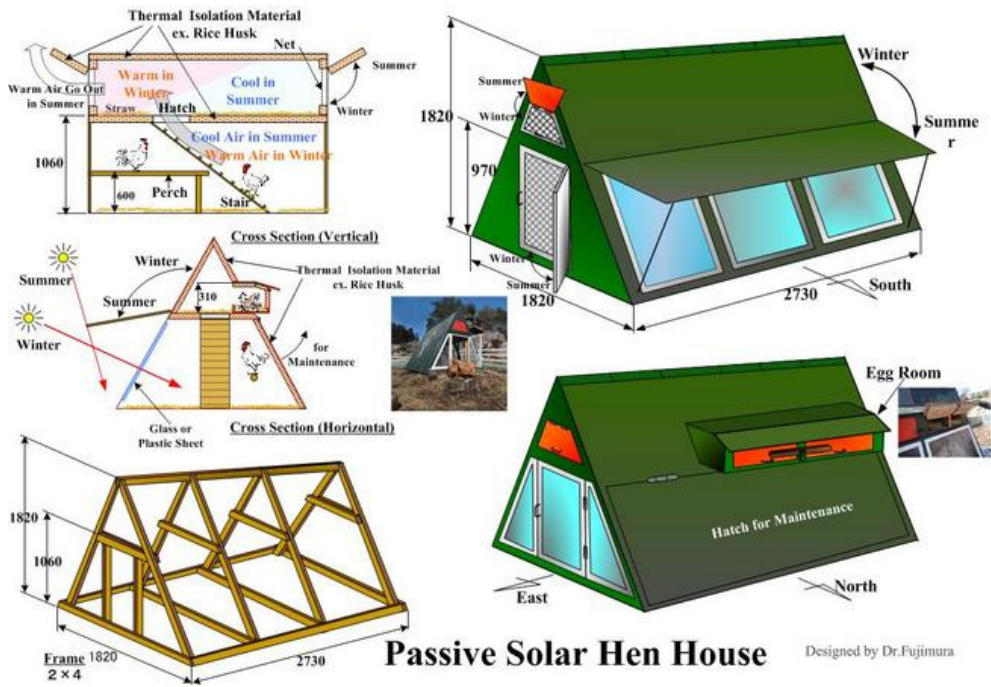


후지무라 야스유키
 藤村 靖之 ふじむら やすゆき
 Yasuyuki Fujimura

오사카 대학에서 기초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니혼대학 교수를 지낸 후지무라 박사는 30여 년 간 1,000여 개의 제품을 발명하여 과학기술청 장관상과 발명 공로상을 받은 일본 최고의 발명가이다. 천식을 앓는 아들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발명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에 좋은 것'을 만드는 발명가로 거듭난 그는, 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2000년 봄, 전기 사용은 줄이고 행복지수는 높이는 '비전력공방'을 설립하여 제품 개발 및 제작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06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비전력화 프로젝트'의 철학과 성과를 집대성한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를 출간하여 한국과 일본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으며, 대한민국과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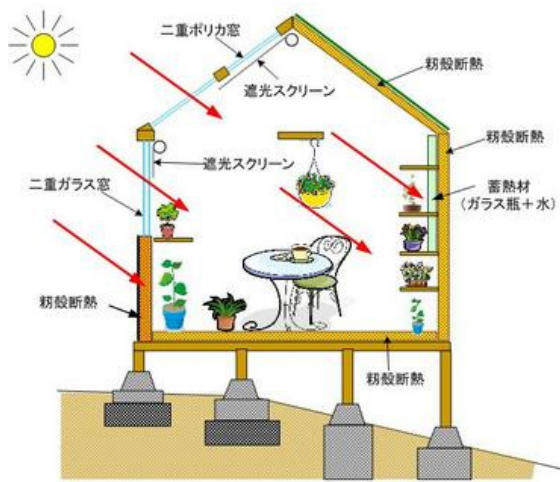
비전력 공방 홈페이지 :
<http://www.hidenka.net>





워크숍 1 | 후지무라 이소유키 | 藤村 清之 ぶじむら やすゆき

非電化グリーンハウス





토미야마 히로시
 富山 普 とみやま ひろし
 Hiroshi Tomiyama

텃밭에서 마켓까지 : 생태적 삶을 위한 도시계획



토미야마 히로시
 富山 普 とみやま ひろし
 Hiroshi Tomiyama

치바현 아비코시 출신.
 도쿄 미타카시 거주, 두 아이의 아빠

환경공생형의 소규모 농가와 도시소비자가 서로 배우는 농가시장 '도쿄아사이치 어스데이마켓 (東京朝市 アースデイマーケット)' 사무국장을 2009년부터 맡고 있다.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관계가 낯선 문제나 구축할 수 있는 관계성을 테마로 마켓을 허브로 한 음식, 환경, 사회문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의 고민은 후속(뜻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는 시민활동 만들기, TPP, 시민의 손에 자신감을 야기하는 일.

〈도쿄 아사이치(아침 시장) Earth Day Market〉는 2006년부터 요요기공원이라는 도립공원에서 소규모 유기농가와 수공예 작가, 페어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농가시장이다. 이 활동 텃밭과 도시를 연결하는 쌍방향인 바로 "텃밭에서 마켓까지"라고 하는 생태적 삶을 위한 도시계획이다. 사회가 효율화 될 때 만들어지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에코노미(경제)의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시민들이 만드는 수평적인 관계에 의한 인간적인 에콜로지(생태)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Earth Day Market은 이러한 사상에 매우 적합한 "교류의 장으로서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을 전하기 위한 입구가 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생태를 생각할 때 환경부하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주안점이었다. 농가시장을 운영해 오면서, 생명의 근원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강하게 느낀다. 생태는 “그린 에코노미”라는 한 단어만으로 치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간 스스로가 진정으로 환경적이 될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대자연의 일부라는 의식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떠드는 것은 ‘살을 빼기 위한’, ‘고기능(영양)’, ‘식도락’에 관련된 이야기 뿐,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새로운 음식이나 농업에 관한 정보는, 일시적인 정보로만 이용되다가 사장되고 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의 근원 이어야 하는 음식에 대한 인식이 아주 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근원을 키우고 있는 농가와와의 만남이나 공동체형은 바로 에콜로지 입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회귀운동인 “라스타파리안”의 사상 중에 “ITAL FOOD”라는 말이 있다. “You are what you eat”라는 뜻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이, 날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권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비하하지 말고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수직적관계에서 수평적관계를 만드는 장으로

수직적 관계, 즉 한가지 일만을 전업으로 하는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면,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게 되고 만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한 업종의 붕괴가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마는데 생활은 궁핍해지고, 보다 싼 물건들을 보다 빨리 얻지 못하면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힘이 들게 되는 것이다. 반면, 수평적 관계, 즉 자립을 하게 되면, 한 업종의 붕괴가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은 줄어들게 된다. 서로 부족한 부분은 기대고 도와가는 관계 또한 가능해진다. 자립은 독립과 고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과 기동을 연결할 수 있는 여유를 낳고, 더 나은 향상을 위한 교류를 만든다. 대표적인 예로서, Earth Day Market에서는 ‘대나무텐트’, ‘출점자교류’, ‘참가자의 농적체험’이라는 3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셴린 창
Shenglin Elijah Chang

서울광장 발칙한 상상 “Grow Food, Not Lawn”



셴린 창
Shenglin Elijah Chang, Ph.D.

셴린 창은 2000년 버클리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립대만대학 건축과 도시계획 대학원의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셴린 창은 시민예술, 커뮤니티디자인, 사회정치활동 등을 통해 환경이슈에 대중의 참여를 혁신하는데 기여를 해왔으며, 주요저서로는 The Global Silicon Valley Home: Lives and Landscapes within Taiwanese American Trans-Pacific Culture (2006) 이 있다. 그녀는 최근 신지역활성화 연구 개발센터(New Ruralism Reserch and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농촌지역의 재생을 위해 사회문화적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농촌지역을 재생하는데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잔디를 걷어내고 식량을 키우자라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의 도시경관이 오로지 경관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녹색의 공간이면서도 생산적인 텃밭으로 만들자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에서 “Grow Food, Not Lawn” 이라는 사이트는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잔디공간인 서울광장을 잔디가 아닌 생산적인 어떤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유쾌하고 신나는 일이 아닐까?

도시는 늘 변한다. 도시농부들의 광장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기대해본다.

일시

2013년 6월 2일(일) 오후 2시 “2013 서울도시농업박람회” 마지막날

장소

서울광장 도시농업박람회 국제관 앞

프로그램

- 참여방법 안내 이강오
-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소개 셴린 창 (국립대만대 교수)
- 서울광장에 대한 Grow Food, Not Lawn 아이디어 작성 (개인 또는 모임)
 - 참여자에게는 재활용 골판지 박스와 그리기 도구를 제공
- 아이디어 박스로 퍼즐만들기
- 각자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하기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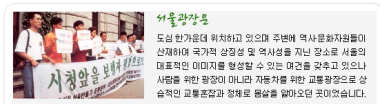
서울광장은 3.1운동, 6월 민주화운동 등 한국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의 무대였으며 2002년 월드컵 기간에는 시민들의 축제의 마당이었습니다. 시청광장의 역사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월산대군 개인집(덕수궁)으로 돌아온 1897년부터 시작됩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고종은 나라의 기틀을 새로이 하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선형 도로를 닦고 앞쪽에는 광장과 원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문 앞 광장은 고종보호 시위, 3.1운동,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6월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주요무대가 되었습니다. 🍃



1940년 무렵 시청 앞 광장



- 위치 : 서울시 중구 덕평로 1가
- 면적 : 총면적 : 13,20㎡, 잔디 : 6,440㎡, 휴광적 : 6,750㎡
- 형태 : 대청마루에 큰 보물함을 연상하는 타원형의 잔디광장
- 잔디종류 : 추위에 강한 벤탈키 블루그래스(서울월드컵경기장과 같은 종류)
- 부대시설 : 벤틀본수, 잔디광장 둘레 48개의 조명등



서울광장도

도산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역사문화자원들이 산재하여 국가적 상징성 및 역사성을 지닌 장소로 서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시민을 위한 광장이 아니라 자부심을 위한 교통광장으로 상층적인 교통조직과 정채로 혼잡을 빚어오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상가 및 지하보도뿐만 광단이 가능하여 보행집중성이 매우 높았고 경매지, 노약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가 관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행공간으로 조성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함께 시민여론조사에서도 광장조성에 대한 수요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광장이 붉은 의미의 승리의 메카로 부각되면서 시민 열정과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광장조성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plaza/info/plaza_info04.html





2013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는 사람들

1. 마을텃밭 김선정
2. 학교텃밭 장진
3. 청년텃밭 나혜란
4. 힐링텃밭 이미애
5. 텃밭공원 민성환



김선정
〈마을텃밭〉

한내텃밭은요



김선정
〈마을텃밭〉

금천한내텃밭 운영위원장.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 금천
도시농업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재직중.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올여니 살아 생전에 작은땅이라도
있었으면~” 노동자로 살면서 배우게
된 노래였습니다.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
사회의 주역이면서도 소외받는 것은 마
찬가지였지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고향이 시골이어서 그랬는지 농사와
농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주말 농장에서 함께 농사
짓던 경험만 있었는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우연히 ‘도시농업’에 대한 공부로
하게 됐고, 지금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
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발칙한 상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를 꿈꾸게 합니다.

한내텃밭은 개발을 앞둔 유휴 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천구 주말농장이다. 비어있는 땅을 잠시라도 활용하고자 했지만, 토지주를 설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큰 태풍으로 산사태가 나서 흘러내린 많은 흙을 급하게 거둬야 했던 상황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다. 동네 일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다.

본디 농사라는 것이 땅을 기반으로 하는 일이라 공간의 확보는 가장 큰 숙제이다. 공간이라 함은 마을을 뜻하기도 해서 도시농업 또한 도심이지만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 주말농장이 없어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마을 곳곳의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는 일에 나서서도 부딪치는 한계는 자투리 공간이라도 소유자와의 협조 문제가 가장 크다. 우리는 한내텃밭을 통해 금천구에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효과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신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벌이고 다녔다. 처음엔 행사 위주의 사업을 진행했고, 나중엔 행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모아애(?) 하는 심적 부담이 일을 하는 걸림돌이 됨을 알아차렸다. 사람이 있는 곳에 답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찾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일에 몰두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지 누가 계획해서 진행할 만한 일은 못되었다.





5천 평 부지의 한내텃밭은 마을 텃밭이라고 말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 금천구라는 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숫자와 범위가 너무 커서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는 무리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은 품이 들었지만 800구좌의 분양자들을 10개 동으로 나눠 동별 배치를 하였고, 동 대표를 선출해서 운영위원회를 두어 크고 작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동대표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 할 것이다.

작년 한 해 텃논두레단을 모집해서 벼를 키우고, 호미걸이 축제라 하여 지역단체들과 잔치를 벌이고, 청소년들과 함께 목공소를 만들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도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성숙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바비큐 파티가 가능한 자유로움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무책임하게 뒷정리를 하지 않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참으로 좋아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내텃밭에는 다양하고 발칙한 아이디어들이 샘솟고 있다. 폐가구를 재활용해서 텃밭을 만드는 목공소모임부터, 농사의 흥을 돋아주는 풍물 모임, 토종 종자를 연구하는 모임, 텃밭의 채소로 자연식을 만들어 공유하는 요리 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공동텃밭을 함께 일구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폐가구 재활용을 시작 하면서 동네는 더 좁아졌다. 하나 둘 길거리에 버려진 가구에 대해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어떤 이는 텃밭의 하우스에 고장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가기도 한다. 누구나 필요한 공구를 나눠 쓸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목공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변하는 듯하다. 공유를 통한 공동체적 삶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제 2 회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한내텃밭 행사

구분	주 제	내 용
볼거리	재활용 텃밭	폐가구, 욕조, 아이스박스, 페트병, 가방, 청바지, 쌀부대 등 생활폐기물을 활용한 텃밭 전시
	손바닥 도서관	텃밭 경작 관련 책 도서관 운영
	둘레길	텃밭정원, 토종텃밭, 장애인텃밭, 퇴비장, 지렁이 사육장, 생태화장실, 냉쿨터널 등
즐길거리	달밤의 텃밭영화제	농업, 환경 영화 등 상영
	빛그림 공연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농사관련 도서 빛그림 공연
	모내기	한내텃논 모내기 '텃논두레단'이 진행, 풍물공연



장진
〈스쿨팜 활성화 방안〉

서울시 스쿨팜 활성화 방안



장진

장진은 현재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 연구소 연구원이고, 농진청의 “초등학교 내 체험학습용 스쿨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환경에 적합한 스쿨팜 모델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시범 운영해보고, 원예통합프로그램 모니터링,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적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스쿨팜의 가치향상 방안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차후 목표는 쉽고 효과적으로 스쿨팜을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스쿨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jinim0903@nate.com

스쿨팜의 정의 및 필요성

UN에서 제창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환경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스쿨팜(School Farm)이란

“학교School”와 “농장Farm”의 합성어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자 도시의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건물옥상, 공공 유휴지와 더불어 학교부지에서도 소규모 도시텃밭City Farm이 확대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학교 부지를 활용한 체험학습용 텃밭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원에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스쿨팜’이란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상자나 노지를 활용한 텃밭을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먹거리와 자연순환의 이해를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함께 생명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되살려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공간을 말한다.

서울시 스쿨팜의 현황

서울시에서는 「농촌체험으로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한」 2013년 학교농장 조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62개 학교(신규조성 및 농촌체험 : 43개교, 기존성지 운영관리비 및 농촌체험 지원 : 19개교(시 조성 대상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유휴공간(자투리땅, 옥상, 기타 유휴공간 등)을 중심으로 400백만원(서울시250, 농협중앙회150)의 예산을 통해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학교 실정에 맞는 농장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텃밭유형, 작물 관리, 프로그램 지도안, 프로그램 운영효과 분석, 예산운영방안, 관찰 기록장의 다양한 사례 및 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가꾸고 수확하면서 농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는 스쿨팜 본연의 교육적,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 전문가 및 강사 일자리 창출효과, 교사와 학부모, 도시농업 전문 민간 단체들, 도시와 농촌의 연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효과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스쿨팜의 유형

스쿨팜을 공간에 따른 유형과 목적에 따른 유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간에 따른 유형은 대유형 구분으로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지반은 교내 공터, 학습원, 교외 노지로 구분하는 노지형, 논습지와 같은 습지형, 자투리공간형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인공 지반은 옥상텃밭, 벽면텃밭, 중정원으로 구분하는 인공지반형과 실내용 키트(원예용기)와 상자텃밭, 자루텃밭, 모듈형 텃밭의 화분형, 화단텃밭인 화단형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초등학교 스쿨팜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예: 상자형과 화단형)하여 활용하는 모습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스쿨팜의 목적에 따른 유형은 교육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4가지 측면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쿨팜의 기대효과

스쿨팜 교육은 인지적인 부분에서 식물가꾸기를 통해 활동적 참여와 식물 고유특성인 오감자극이 연계되어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학습을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통합적 사고 증대, 식물가꾸기 활동과 연관된 수학교과, 과학교과, 국어교과, 사회교과에서 요구되는 논리와 사고력 증진, 학습에 대한 흥미도 및 성취도 향상이 기대된다.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체험학습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소중함을 배우고 로컬푸드를 체험하면서 건전한 식습관 및 편식개선에 기여하고 학교 급식 체험, 음식체험에도 활용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한 “초등학교 내 체험학습용 스쿨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쿨팜 프로그램의 실시 전 후를 비교 결과 스쿨팜에 참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스쿨팜을 참여하지 않은 아동보다 유의하게 긍정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쿨팜의 지불의사액 계측을 위해 CVM분석을 적용하면 스쿨팜의 가치는 월평균 18,273백만원, 연평균 219,277백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학교에 한명씩 총 1만명의 원예사를 고용할 수 있는 가치와 맞먹는다.



스쿨팜 활성화 방안

학생들의 교육적, 정서적, 사회적 효과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속에 통합되어 있는 적합한 스쿨팜 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구(원예용 키트, 화분, 원예용 도구 등)의 보급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특성상 원예전문가 및 강사 인력을 양성하여, 스쿨팜의 멘토가 되고, 학교 교사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할 경우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해야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가 수렴된 매뉴얼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스쿨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식물을 가꾸면서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계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쿨팜의 체험을 바탕으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서울시 내에서 스쿨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사업과 환경교육의 실천운동으로도 확대되길 바란다. 🌱



나혜란
〈파릇한 절문이〉

파절이, 농사의 열정으로 일어서다

〈파릇한 절문이〉는 도시에서 옥상텃밭을 가꿔 로컬푸드를 실천하여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일하는 협동조합이다. 줄여서 '파절이'라고 부르는데 '파릇한 절문이(젊은이)가 파절이가 될 때까지 열심히 농사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혜란
〈파릇한 절문이〉

파릇한 절문이. 청년농사꾼들의 모임 '파절이'의 대표. 미술을 전공하고 광고 디자이너를 꿈꾸던 어느날 '너는 왜 디자인했어?' 하고 무심코 던진 친구의 질문을 받고 저의 디자인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셜디자인을 접하고 관련된 몇권의 책과 강의를 들으며 '환경'에 꽂히게 되었고 '환경을 위한,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환경운동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하면서 내가 하고 자란 대한민국 땅이라는 개발에 속수무책인 것을 보며 느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도심에서 농사 짓기였습니다.

저는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2012년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농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작물마다 다른 농사법을 몰라 작물을 망치기 일쑤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에 몸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처음 작물을 거뒀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너는 디자인 했는데 왜 농사짓고 있어?'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난 지금 세상을 디자인하고 있잖아.'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하는 로컬푸드운동을 통해 도시에서 일어 버린 초록을 되찾고 사람 간의 대화가 생겨나고 지역전체가 힐링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도시와 환경, 그리고 지역을 생각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하는 디자인입니다.

파절이의 시작은, 2년 전 열 명의 도시청년들이 모여 '도시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자전거에 싣고 홍대지역 카페에 팔아보자!'고 작당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파절이 나혜란 대표는 모임이 만들어질 당시 2011년,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이자 핵심멤버로 모임을 이끌었다. 파절이 멤버들은 매주 일요일 환경연합 센터에 모여 마당과 옥상, 베란다를 텃밭으로 가꿨고 땅 확보에 대한 열망으로 월드컵 상암경기장 근처 공터를 불법개간했으나 실패했다. 도시농업의 한계를 몸소 경험한 파절이들은 서울시 노들텃밭에 새로운 동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수확철을 맞아 파절이들은 제대로 '파절이'가 되었다. 10평 남짓한 땅에서 많지 않은 수확을 했지만, 그 농산물을 홍대 인근 3곳의 카페로 매번 자전거로 40분 이상을 달려 배달을 했다. 경작 과정에서 모아 퇴비화 해 거름으로 쓰는 등, 경작만 친환경으로 할 게 아니라 자전거로 배달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에 전달되는 유통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게 파절이의 지론이다.

파절이, 성장하다!

작년(2012) 6월 2일 서울농부의 시장에 참여하면서부터 대외활동이 활발해졌다. 발전기가 부착된 자전거를 시민이 직접 페달을 밟아 토마토주스를 갈아먹는 체험을 진행하여 파절이의 존재도 알렸고 로컬푸드의 의미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후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하는 '소셜이노베이션캠프 36 아이디어'에 선정되어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그리고 최장수 인디음악 축제인 '쌈지사운드페스티벌'에 참가해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이용해 창문가에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인 원도우팜 활용법'을 선보여 농사 디자인의 좋은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열심히 행사할(?) 댄 셈! 농부시장에 참가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마르세@혜화동 장터에 첫 장부터 매달 참여하면서 도시농부들 뿐만 아니라 요리사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파절이는 작년 가을, 발작물들이 한창 자랄 무렵 한 흥대 카페 사장님께 광흥창역 근처 옥상 공간을 기부받았다. 그 옥상을 텃밭으로 만들기 위해 소셜 펀딩을 받는 프로젝트 진행했다. 펀딩 결과 106분이 1100만 원을 후원해주었고, 올해 서울시 도시농업 민간단체 10곳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텃밭을 기반으로 어떤 형태로 활동해 나가야 할까?' 옥상 텃밭을 기획하면서 파절이 멤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곧 모임의 방향과 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민간단체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마침내 올해 1월 20일, 파절이는 <파릇한절먼이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으로 새로 태어났다.

파절이는 2월 말 협동조합이 등록되는 동시에 옥상 텃밭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두달간의 구조진단과 기초공사, 디자인작업을 마치고 5월5일 옥상 텃밭 프로젝트를 후원해 준 후원자, 파절이 회원 및 파절이에 관심있는 이들을 초대해 '공중 텃밭 오픈파티'를 열었다. 앞으로 파절이는 '공중텃밭'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로컬푸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건강한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로컬푸드 실천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로컬푸드 디자인을 논하다!

파절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파절이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농사 한 번 지어본 적 없는 도시청년들이 의기투합해 소금기많은 노들섬의 흙을 살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가장 신선한 채소를 배달하기 위해 주말을 반납했다. 초보 농사꾼의 작품 인지라 작물의 상태가 그리 훌륭하진 않았지만 애지중지 키운 자식새끼의 기분이 어떤건지도 배웠다.

그리고 파절이는 농사는 힘들고 낯은 것이 아니라 즐겁고 생산적인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농사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디자인과 문화적인 요소를 더하려고 노력한다. 초기 열명의 멤버 중 무려 세명이 디자인 전공자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정기 회의 때마다 파절이의 방향과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단체의 컨셉과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다. 서로 언어와 표현은 달랐지만 '멋있게', '예쁘게' 농사짓고 싶다. 로고도 예쁘고 농사 패션도 간지 나야겠지만 여기서 예쁜 농사는 거주만 예쁜 게 아니다. 어떻게 농사 지어서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그것을 누리냐는 라이프스타일의 문제인 것이다. 자, 로컬푸드로 삶을 디자인 해보자. 도시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아니,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 다만 현재 도시의 소비 지향적인 프로세스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생산적이고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 힐링 프로세스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프로세스 안에 로컬푸드와 디자인이 절묘하게 들어맞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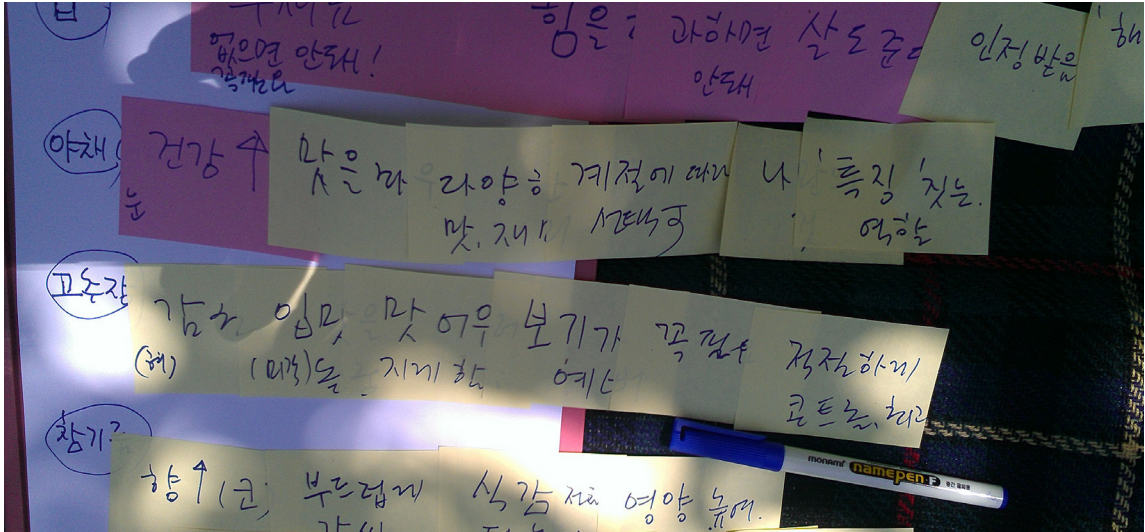
치유를 위한 도시농업(Local food for city healing)

우리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파절이'들은 도시 소비자로서 도시 농부가 가까워지는 로컬 푸드 운동을 통해 도시에서 직접 작물을 가꾸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가혹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청년들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고 싶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게 스스로 자기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파절이들은 믿고 있다. 또한 텃밭 농사와 그 생산물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의 건강과 안녕을 일구는 연대의 밑돌 하나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가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 때 도시는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도시 농사는 놀이이자 문화이고 좋은 습관이 될 것이다. 파절이는 '치유를 위한 도시농업(Local food for city healing)'의 비전을 가지고 농사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이미애
(여성환경연대)

치유의 텃밭



이미애
(여성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교육팀장, 대안생활위원.
(현)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 연구원.
드라마치료전문가이자 코칭전문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생태교육에
치유를 접목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숲치유, 텃밭치유프로그램
을 개발, 진행하였다. 현재는 사람들의
치유와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치료,
심리코칭 등 분야에 주요 에너지를 투입
하고 있으며, 임환우를 위한 숲치유,
치유 텃밭, 청소년 및 부모, 가족을 위한
치유 캠프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호기심, 경감, 아름다움, 재미와 통찰’은
나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이슈들이다.

1. 치유타밭의 의미

치유(Healing)의 의미는 몸과 마음의 치유이며 보통 정서적 치유를 의미한다. 정서적 치유는 ‘마음의 치유’ 즉,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 둘씩 쌓이게 된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된 부정적 감정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다시 자연스럽게 순수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치유타밭은 텃밭농사를 매개로 하여 마음의 치유를 돕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텃밭 활동의 새로운 실험적 시도이다.

2. 치유타밭의 조성배경

- 병원의 화단을 텃밭으로 개조하여 암 환우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 (이대목동병원 내 진선미공원 화단, 2011~2013)
- 여성환경연대가 텃밭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기로 함
- 암 환우들이 투병생활과 수술 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치유의 프로그램이 텃밭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램

3. 치유타밭의 목적

- 환우들이 텃밭채소를 유기농방식으로 직접 키우고 수확하고 시식해보는 체험을 통해, 암 환우의 식생활에서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고, 암 위험 요소를 줄여보는 실천을 돕는다.
-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키우고, 수확하고, 땀을 흘리는 건강한 노동을 체험하며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기른다.
- 텃밭이 주는 메시지를 주제로 한 치유 토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는다.





4. 참가자의 참여 동기

- 텃밭농사를 배우고 싶어서
-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보고 싶어서
-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체험
- 환우들의 모임에 참가해보고 싶어서

5. 역할분담

- 텃밭교육프로그램 진행 : 텃밭전문가
- 텃밭 치유 프로그램 진행 : 심리치료전문가
- 환우 조직 및 출석관리 : 담당 간호사
- 참가자 (대상 : 유방암 및 기타 여성암환우)

6. 프로그램

회차	텃밭주제	텃밭활동	치유토alking
1	밭 준비작업	퇴비 넣기	시작 의식: 첫만남의 어색함 깨기
2	감자심기	씨감자심기	나의 올해 소망은?
3	파종	봄채소 씨 뿌리기	텃밭 타로-무의식과 나의 심리
4	모종	채소모종 심기	흙, 햇빛과 단비 같은 사람
5	열매작물	열매작물심기	나만의 새싹 찾기
6	병해충 관리	시나몬 벌레퇴치제	蟲- 다르게 보기
7	소품 만들기	텃밭가방만들기	잡담-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
8	텃밭관리	풀매기	잡풀- 새롭게 보기, 마니또 게임
9	수확1	채소 비빔밥 만들기	비빔밥의 구성, 그리고 나의 역할은?
10	수확2	건강요리 경연대회	자랑질 하기
11	수확3	감자캐기	수확의 기쁨! 성취의 경험 떠올리기
12	텃밭파티	수확 요리와 나눔	마니또 확인, 감사나누기

7. 성과

- 사회적 의미 : 병원 내 텃밭을 조성하고, 환우들과 함께 가꾸며, 불안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심리적인 지지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 시간적인 즐거움: 맛있는 화단에서 텃밭으로 변신함으로써 친근한 채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 작은 이벤트 :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장면을 공원을 지나가는 행인, 병원관계자, 휴식하러 나온 입원환자들이 함께 지켜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일시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텃밭활동의 결과물들(예: 찰흙장승, 바둑그림 등)이 전시되어 가족, 간병인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정서적 위안 : 투병생활로 지치고, 우울한 입원생활을 하고 있는 환우들이 하루하루 날이 다르게 자라나는 새싹을 보면서 정서적인 위안을 받기도 했다고 (장기입원환자의 소감)

8. 주체별 평가

- 진행팀 : 병원텃밭프로그램은 '텃밭(지구를 위한 보살핌)'과 '치유(사람을 위한 보살핌)'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의미한 콘텐츠였다. 또한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지지와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치유 프로그램이 결합된 텃밭프로그램은 그 사회적 의미와 함께 병원 측과 환우 측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었다.
- 참가환우 : 병원텃밭을 가꾸는 자긍심, 자부심이 생겨 좋고, 수확을 해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고마운 이들과 나눌 수 있어 뿌듯했고, 치유적인 내용을 담은 이야기 나눔은 서로 지지와 위로, 격려가 되어 행복했고, 마음 편안하고 따뜻했다. 진행팀의 정성 어린 프로그램준비를 보며 '보살핌과 배려 받음'을 느낄 수 있어 고마웠고, 자신의 활동이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
- 병원 : 환우들의 반응이 좋고, 프로그램 분위기가 다른 것들에 비해 '색다르고', 진행팀의 진정성 있는 진행으로 무척 편안한 느낌을 줘서 좋았다. 기존의 화단에 비해 텃밭으로 변신한 후 병원 내 휴식공간인 공원이 더 생동감 있어서 인기가 좋다. 다른 날보다 치유텃밭활동이 있는 목요일 오전이 늘 기다려지고 기대된다. 🌱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갈현텃밭, 무궁무진 마을 상상!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일하고 있다. '마음이 여리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결국 떠나지 못하고 진지(陣地)를 지키고 있다라.'는 진단에 고개를 주억거리며 오늘도 열심히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원래는 생태보전과 생태교육이 전문이지만 몇 년 전부터 전환마을과 도시농업, 에너지운동에 발이 빠져 있음, 입으로 열심히 농사짓고, 에너지협동조합도 만들면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가끔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 북한산 자락에서 예쁜 아내와 '민이랑밭'이라는 예쁜 이름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은평구 불광2동에 마실 오시면 갈현텃밭에 꼭 들려주세요.

갈현텃밭은 마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접할 것은 변변찮지만

아름다운 '북한산 경관'과 서울에선 좀체 맛보기 힘든

'사람 사는 마을 정서'는 듬뿍 드릴 수 있지요.

점심 때 찾아오신다면

밥 한끼 대접이 무에 그리 어렵겠습니까?





대부분의 평지와 완만한 구릉지가 다 그렇지만 원래 이곳도 예전에는 논농사 짓던 터였죠. 농농사가 힘들어지자 땅을 복토해 밭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일부는 과수원으로 활용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갑자기 남산에 있던 국공장을 이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게 아마 2010년 일 거예요. 이 소식에 지역의 한 생태환경단체가 발끈했죠. 무슨 소리? 이 단체는 그전부터 서울지역 그린벨트 보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내 농지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도시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린벨트지역 내 농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꿈틀한거죠. '국공장' 대신에 '습지생태공원' 아니다. '국공장' 대신에 '도시농업공원!'.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마침, 도시농업이 전세계적 이슈가 되고, 도시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시장이 시정을 맡으면서 전환점이 생겨요. 결국, 민간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국공장' 계획은 백지화되고 도시농업을 주제로 하는 체험공원을 짓기로 결정하죠. 박수!



하나 더. 이왕, 민간의 제안으로 도시농업공원을 만들 거면, 조성기획 과정도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방식으로 만들어보자 했더니, 왜 서울행정은 정말 앞서나가요. 그렇게 하자 하네요. 그래서 '(가칭)갈현도시농업체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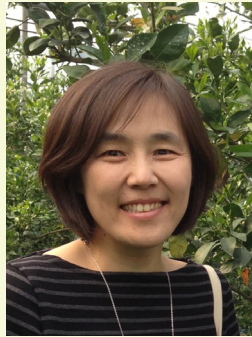
갈현텃밭은 마을의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거예요. 불광2동은 변변한 동네 수다방 하나 없는 곳이에요. 갈현텃밭에 들어설 도시농업체험센터(카페와 요리가 가능한 공간이에요)는 지역의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거예요. 누구나 마실 와서 수다를 떨 수 있고, 도시농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통되는 공간이 만들어질거예요. 그래서 막 기대돼요! 갈현텃밭이 꿈꾸는 마을이,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막 응원해 주세~요! 🌱

2013 제 2 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진행자 + 토론자 소개



김수향
Kim Suehyang

도쿄에서 태어나, 오사카, 요코하마에서 자란 자이니치 3세. 97년, 1년의 어학연수로 서울로 왔다가 현재까지 거주한다. 한국문화, 특히 음식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코디네이터, 기자. 2006년부터는 홍대에 '카페 수카라'를, 2012년부터는 '마르쉐@'을 기획, 운영한다. 홍대옥상텃밭과 집마당을 가꾸고 텃밭에서 난 재료로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생산자와 생산과정이 보이는 음식과 물건들 속에서 살고 싶어, 마르쉐@을 통해 그런 삶을 실험하는 중이다.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로 문래 도시텃밭과 홍대텃밭다리, 합정대륙텃밭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텃밭공동체 활동, 로컬채소브랜드 만들기 등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기획에 함께 하고 있다. 더불어 마르쉐 친구들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2012년부터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작은시장 마르쉐@혜화동을 운영해 오고 있다. 주민생활 협동조합 조직교육활동가,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시공원과 도시숲 시민참여 운동을 해왔다. 2013년 시애틀의 도시농업 이야기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번역하였으며,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내영
지역 퍼실리테이터 '지퍼'

문래옥상텃밭에서 주민들과 함께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다. 대학졸업 후 관악에서 빈곤, 실업, 마을만들기 등을 테마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7년 가까이 일본에서 공부 및 연구원 생활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본 희망제작소 설립계획에 참여한 이래, 주로 한국과 일본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고 특히, 도시농업을 중요한 커뮤니티 복원의 중요한 도구로 보고 문래옥상텃밭에서 주민들과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다.





안철환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텃밭보급소 소장

경기도 안산의 바람들이
농장에서 14년째 농사를 짓고
있으며 50여명의 도시농부
회원들과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도시농업에
거름만들기 등 순환농사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토종 종자를 도입하고
전통농업을 도시농업에 접목
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내 손으로 일구는
유기농텃밭〉(공저),
〈도시농부들 이야기〉,
〈시골똥 서울똥〉,
〈24절기와 농부의 달력〉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이 있다.



조경진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서울대학교를 거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 서울그린트러스트
운영위원장 및 서울문화포럼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철원 철새마을 커뮤니티디자인
총괄계획가를 맡고 있다.
저서(공저)로 〈건축도시조경의
지식지형〉(나무도시, 2011),
〈보이지 않는 용산〉,
보이는 용산(200)〈도서출판,
마티〉등이 있다.



천호균
쌈지농부 대표

패션잡화기업 (주)쌈지 창업,
문화 예술을 접목한 아트마케팅
경영. 2009년 '농사는 예술입
니다' 라는 철학으로 (주)쌈지
농부를 창업, 사회적기업으로
〈농부로부터〉, 〈논밭예술학교〉
등을 운영하며 농사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現 쌈지농부 고문
現 서울문화재단 이사
現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사



2013
제 2 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편집 이함공작소
leehaam.net